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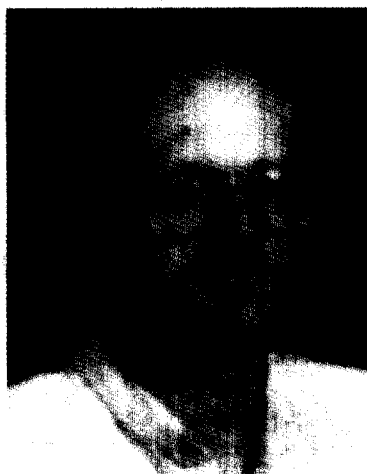
개혁주의 학문과 포스트모던 다원주의의 도전

*Reformed Scholarship and
The Challenge of Post-Modern Pluralism*

John W. Cooper

김성수 번역

- I. 서론: 기독교학문, 모더니즘, 그리고 새로운 다원주의
- II. 포스트모던 다원주의의 경향성: 상대주의와 권력정치
 - A. 상대주의의 설득력
 - B. 포스트모던 상대주의의 영적, 지적 역동성
- III.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
- IV.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개혁주의적 대안
- V. 포스트모던 다원주의와 개혁주의 학문의 공동체



John W. Cooper,
존 쿠퍼 교수는 1969년 Calvin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Calvin
신학대학원에서 철학적 신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 이 글은 “세속적, 다원주의적 세계에서의 개혁주의 대학교”(A Reformed University in a Secularized and Pluralized World)라는 주제 하에 1993년 3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미국 미시간(Michigan)주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에 소재하고 있는 칼빈대학교(Calvin College)에서 열린 RUNA(북미 개혁주의대학교: Reformed University in North America)의 설립을 위한 회의에서 칼빈신학교의 존 W. 쿠퍼(John W. Cooper) 교수가 발표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북미의 많은 개혁주의 학자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갖춘 미래 사회의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84년부터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기독교 고등교육기관들(Calvin College, Calvin Theological Seminary, Covenant College, Dordt College, Geneva College, the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The King's College, Redeemer College, Trinity Christian College, Westminster Seminary in California 등)을 중심으로 북미에 개혁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을 연구, 교수할 수 있는 종합대학교의 설립을 계획, 준비하고 있는데, 가칭 ‘북미개혁주의대학교’(RUNA)는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명칭이다.- 역자주

I. 서론: 기독교학문, 모더니즘, 그리고 새로운 다원주의 (Christian Scholarship, Modernism, and the New Pluralism)

지난 2세기 동안 기독교 학문에 대한 주요한 도전은 모더니즘(modernism)에 의한 지적, 학문적 문화의 점진적인 지배였다. 여기서 말하는 모더니즘은 계몽주의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학적 방법(scientific method)으로 무장한 인간 이성은 실재에 관한 진리를 결정하며, 인간이 잘 살고 행복하게 죽는데 필요한 조건을 찾아 내는데 있어서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수단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 위에 근거한 사상체계를 의미한다. 무신론적 유물론, 진화론적 자연주의, 세속적 인본주의, 그리고 역사적 비평주의 등은 현대 과학의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종교에 대하여,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지속적인 공격을 가해 왔다. 이들은 또한 현대 학문이 그 테두리 안에서 성숙하고 제도화되는 조망(outlook)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도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전략은 이성과 종교를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종교적 진리는 개인적 신앙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학문분야는 이성적 작인(作因)에 유용한 원리들 위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들은 종교적 진리를 확증하지도 않고 그것과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복음주의자들이나 신정통주의자들을 막론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학문의 건설을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전략은 이성이 기독교적인 진리 주장을 채택하기보다는 사실상 지지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모더니즘의 합리론적 진리 기준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과학, 역사, 철학을 보다 완전하게 추구할 경우 신앙을 경멸하는 지식인들에 대항해 신앙의 정당성을 입증해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19세기 카톨릭교회(Catholicism)의 변증학과 프린스턴 신학교의 칼빈주의(Princeton Seminary Calvinism) 변증학,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과정 신학과 판넨버그(Wolfhart Pannenberg) 사상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 전통의 화란계 신-칼빈주의 계통(the Dutch neo-Calvinist branch)에서는 이와는 다른 전략을 사용해 왔다. 이 계통에서는 신앙과 이성을 분리하지도 않고, 또 신앙에 대한 합리론적 논증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대신 이들은 소위 인간 이성의 중립성(neutrality), 자율성(autonomy), 그리고 자충족성(self-sufficiency)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과학적 모더니즘이 결코 자기를 정당화(self-justifying)하지 못하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특징을 지니는 그 자체의 전제와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학문적 문화활동을 하려고 시도했다.

모더니스트들이 스스로 자승자박케 하는 이러한 전략은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와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이들의 후계자인 도예벨트(Dooyeweerd)와 볼렌호븐(Vollenhoven)의 활동, 그리고 그 후의 개혁주의적 학문 활동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칼빈대학의 카이퍼주의(Calvin College Kuyperianism)와 앨빈 플랜팅가(Alvin Plantinga), 그리고 니콜라스 월터스토포(Nicholas Wolterstorff)의 개혁주의적 인식론에서는 다른 형태를 취

하고 있다. 코넬리우스 반틸(Cornelius Van Til)과 그의 추종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전제주의(presuppositionalism)에서도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 가운데도 가족분쟁이 있고,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학문에 영향을 주는가에 관해서 때때로 날카로운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로 이러한 분쟁과 불일치는 어디까지나 공통된 주제의 변형일 뿐이다. 우리는 아직도 이성이 구주(lord and savior)라고 하는 모더니스틱 선언(modernistic proclamations)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신칼빈주의자들과 카이퍼주의적 전략은 우리에게 여전히 가치있는 도구로 남아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모더니즘은 그 자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소위 ‘포스트모던’ 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조망의 선언마저 진부한 표현이 되어가고 있다. 아직 하나의 정교한 세계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포스트모더니즘은 적어도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 모두에 점차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반-모더니스트적 태도의 결집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과 진리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다는 계몽주의의 금언을 부인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또 과학이 실재에 대한 가장 참된 모습을 산출하고 삶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주장을 부인한다. 과학이 세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타당한 방식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실재에 대한 문화적, 심미적, 영적, 그리고 심지어는 신비적인 많은 표상까지도 동등하게 합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것을 이성의 실패로 개탄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실재를 경험하고 이 실재에 대해 우리가 제공하는 수많은 해석들을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찬양하고 있다. 두렵건대 이 새로운 변화의 핵심에는 많은 사람들이 급진적 상대

주의의 의미를 갖는 다원주의의 원리가 자리잡고 있다.

오늘날 대중문화에서 종교와 영성이 다시금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피족들(yuppies)¹⁾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으며 영화배우들이 뉴에이지(New Age) 명상을 하는가 하면 점성술을 계획하는 정치가들도 있다. 나이가 대안적인 삶의 양식, 문화, 그리고 세계관들에 대한 개방성이 증대하고 있다. 서구의 전통주의자들, 중동의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원시 토착인들도 모두 그들 나름대로의 관점과 가치, 그리고 지혜를 소유하고 있으며 어느 것이 보다 더 진리에 가까운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유럽과 미국 남성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²⁾ 각각의 관점과 가치, 그리고 지혜들이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으로 타당하다고 한다. 실제로 보편적인 기준의 사상 그 자체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분명히 왜곡된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오만하며, 제국주의적이다. 다른 사람의 신념과 가치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전통적인 관점과 현대적 관점, 익숙한 관점과 낯선 관점 등 모든 관점의 가치를 똑같이 인정해야만 한다. 학문에 있어서 해체주

1) 여피족들(yuppies)은 흔히 사회 경제적 성공과 풍요한 생활을 즐기기 위해 생활하는 소위 새롭게 부상하는 젊은 전문직업인들 (young upcoming professionals)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들의 생활 방식은 종종 전문직, 고등교육, 결혼한 부부, 무자녀, 부유한 삶과 행복 추구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 역자주

2)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 문화 속에서는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모든 소수 민족과 계층들의 관점과 가치관, 그리고 지혜들이 모두 나름대로 타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 동안 지배적 위치에서 특권을 누려온 유럽과 미국 남성들의 관점과 가치, 지혜들은 이제 그 타당성을 인정치 않아야 한다는 정서를 의미하고 있다. - 역자주

의부터, 가치정화, MTV의 원시적 혼돈, 그리고 대중의 도덕성에 있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공교육의 태도 등에 이르기까지 현대문화의 모든 국면에서 이와 같은 상대주의의 특징은 놀랍도록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적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보다 더 위협스러운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이제 현대적 합리주의(modern rationalism)라는 비교적 소수의 적 대신에 엄청나게 다양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상이한 종교와 세계관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새로운 상대주의는 훨씬 더 교활하다. 이것은 공격하는 대신 모든 것을 평범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것은 기독교를 거짓된 것이라고 거절해 버리는 대신 기독교의 상대적 진리를 인정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인지 모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진리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개방성은 복음의 핵심을 제거하고 있다. 우리의 복음은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모든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경배하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진리라고 선언한다.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또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위대하신 명령은 보증할 수 없는 비실제적인 년센스에 불과한 것이 되

고 한다. 이것은 학문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에 응답하고자 하는 기독교 학문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분명한 것은 모더니즘의 쇠퇴가 기독교 복음에 대한 문화적, 영적 도전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도전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몇십 년 동안에 고무적일 정도의 많은 유능한 기독교 학자들이 모더니스트와 포스트모더니스트에 대한 논쟁의 맥락에서 자신들의 학문 영역과 인간 문제의 해결에 중요하고도 경의를 표할 만한 공헌을 이룩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가칭 <북미 개혁주의 대학교(Reformed university in North America)>에 대한 우리의 논의가 상당히 실제적인 적절성을 갖게 되는 지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공헌을 발전시키고 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개혁주의 학자들의 공동체를 위한 제도적 맥락(an institutional context)을 계획하고 있다.

나는 왜 우리가 개혁주의 대학교를 시작해야 하는지, 또는 이 학교의 과제나 교육과정 또는 교육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보다 더 전문가인 이들에게 일임하고, 나는 개혁주의적인 관점이 모더니스트와 포스트모더니스트의 논쟁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에 관해 성찰하고자 한다. 그래서 포스트모던의 사상을 상당히 함축하고 있는 상대주의와 정치화(politicization)의 지적인 뿌리와 역동성을 보다 충분히 살펴보고, 또 여기에 대해 간략한 비판을 가해 보고자 한다. 그 다음 개혁주의의 신학적, 철학적 관점이 어떻게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던적인 상대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학문적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대학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속해 있는 각 기관들에게도 하나의 근본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 문제, 즉 공동체적 다원주의의 역동성이 어떻게 개혁주의적 관점의 활력을 증진시키거나, 반대로 위협할 수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이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포스트모던 다원주의의 경향상: 상대주의와 권력 정치 (Tendencies of Post-modern Pluralism: Relativism and Power Politics)

A. 상대주의의 설득력 (The Persuasiveness of Relativism)

“그것이 당신에게는 진리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문화의 다원주의적 상대주의를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태도의 본질과 뿌리를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람들이 왜 상대주의를 그렇게도 그럴 듯하고 매력적이며 또 사실상 회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로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상대주의는 인간은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다양한, 이른바 상이하면서도 때로는 상호갈등하는 신념들을 견지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다원주의와 더불어 시작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항상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그들의 자녀들을 희생시킨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의학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의식으로써 그렇게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신념의 다원성이 이제 하버마스(Habermas)가 소위 '정당성의 위기'(the crisis of legitimation)라고 부르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된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이 상호갈등하는 신념체계들 가운데서 판결을 내려주는 이른바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합리적인 수단들, 즉 누가 올바르며 누가 잘못되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때로 논쟁자들은 자기들에게 제시되어 있는 이유의 중요성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어떤 사람들이 환각에 빠지는 이유에 관해 각각 서로를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는 정신의학과와 무당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상대주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명백하게 서로 조화될 수 없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즉 다원주의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부터 모든 사람에게는 규범적인 그 어떤 진리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 상대주의자들은 우리의 의견이 일치할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아니다. 상대주의자는 또한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허무주의자도 아니다. 상대주의자들이 부인하는 것은 진리가 하나의 단일적인 보편적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진리와 진리의 기준은 인식주체에 따라 상대적이며 변화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과 공동체들은 그들 자신의 방식대로 세계를 지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틀(framework), 패러다임(paradigm), 언어(language), 또는 체계

(scheme)들을 구체화하는 그들 자신들의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 진리의 기준은 이와 같은 관점이나 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초월해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비주관적인 보편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생각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패러다임이지, 모든 패러다임들을 초월하는 어떤 규범이 아니다. 실재는 사람의 경험에 따라 상이하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은 당신에게는 실제로 진리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진리가 아닌 이유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원주의에서 상대주의로 그럴 듯하게 진행해 간다.

상대주의는 '외견적 타당성'(plausibility) 외에도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다. 진리와 가치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관점이 관용되고, 존중되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선, 정의, 진리, 아름다움 등에 관한 보편적 주장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잠재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들 말한다. 어떤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념이 다른 사람을 실제적으로 억압하는 상태로 인도해 갈 수도 있는 문화적 오만과 지적 제국주의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상대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상대주의가 상호조화될 수 없는 제 관점들의 다원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 관용과 존중심을 조장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주의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신념과 가치가 가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B. 포스트모던 상대주의의 영적-지적 역동성 (The Spiritual-Intellectual Dynamics of P-M Relativism)

그러나 상대주의는 평화스런 다원주의의 논리적 근거 이상이다. 상대주의는 지식, 진리, 실재의 본질에 관한 하나의 종합적 신앙으로서, 심오하면서도 불안케 하는 영적 뿌리를 갖고 있다.

1. 영적 뿌리: 인간의 자율성 (Spiritual root: human autonomy)

이와 같은 영적 뿌리는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질서의 합법적 결정자라는 주장, 즉 인간 자율성에 대한 주장에 놓여 있다. 이 인간의 자율성은 낙원에서 우리의 첫 번째 조상에 의해 하나님께 대항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었으며 그 이후 모든 인간의 기본적 충동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 자율성은 계몽주의 지성인들에 의해 창안되고 최초로 대중화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현대의 사상가들은 우리의 공통된 타락한 인간 본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간의 충동에 대해 지적인 표현을 부여해 왔다. 지성인들은 이미 오래 전에 일을 수행해 오고 있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선언한 사람은 프로타고라스(Protagoras)였고, 르네상스 시기에 로마 카톨릭의 기독교에 가한 전면공격의 한 부분으로써 재흥한 것도 이와 같은 프로타고라스의 정신이었다.

2. 지적 여로: 모더니즘으로부터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Intellectual odyssey: from modernism to post-modernism)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학문적인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더니즘으

로부터 후기 모더니즘을 통해 포스트모던의 상대주의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이 인간 자율성에 대한 주장을 어떻게 전개해 왔는가 한번 상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러한 이야기에 익숙해 있을 것이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다원적이며 회의론적인 여파에 직면하면서 현대 철학자들은, 그들 중 상당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계시와 전통의 권위를 수용하는 중세인들과는 달리 보편적으로 타당한 원리와 이성의 방법으로 하나님, 도덕, 자연, 사회에 관한 진리를 결정하려고 했다. 그래서 모더니즘은 진리를 구하기 위해 모든 전통적 지혜를 합리적 비판에 종속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생각대로 작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성만 그 요구하는 바대로 엄격하게 규정했을 때 그렇게 많은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그래서 활기 없는 이신론(deism)과 냉혹한 도덕주의가 수 세대 동안 견지되었다. 그러나 흄(David Hume)의 시대에 이르러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자들의 전통은 비단 하나님과 도덕에 관해서 뿐 아니라, 과학과 합리성 그 자체에 대한 회의론에 직면했다. 자연, 도덕,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결정하는 모더니스트 또는 계몽주의의 사상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 후 계속되는 세대들은 모더니스트의 활동을 재흥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들을 강구했다. 칸트(Kant)는 자연(nature)과 정신(spirit)을 분리해 이 양자에 관한 지식을 모두 인간 이성의 선험적 원리에 기초지었다. 헤겔(Hegel)과 관념론자들은 자연과 역사의 다양하면서도 불확정적(우연적)인 영역 안에서 보편적 이성의 필요성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경험주의자들과 실증주의자들은 합리적 필요성의 기초로서 심리학적이며 실제적인 필요성에 호소해 왔다. 이들은 모두 이성은 자연과

인간의 본질,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한 규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모두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모더니스트들은 오늘날에도 이 사회에서 대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블룸(Allen Bloom)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구성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불길한 소리는 이미 19세기에 들렸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최초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 낭만주의가 이성의 궁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실재에 관한 진리는 상이한 시대와 장소에서 상이한 문화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역사주의는 이러한 태도를 합리화했으며, 소수의 추상적인 원리를 제외하고 이성만은 모든 시대와 장소를 통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막스(Marx)와 니체(Nietzsche)는 어떤 종류의 사고든 그 객관성에 관하여 깊은 회의를 표현했으며 권력에의 욕망을 이성의 동인(driving force)으로 지적하였다. 그래서 회의와 이념적 비판의 해석학이 탄생했고 심지어는 과학적 경험주의자들 가운데서도 합리주의적 비전은 쇠퇴해 갔다. 밀(Mill)의 공리주의와 제임스(James)의 프라그마티즘으로부터 종교적, 도덕적 진리 주장은 그것을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라고 선언한 비엔나 학파(Vienna Circle)의 선언이 나오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철학적인 사조와 함께 모더니스트의 사상체계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상충부만이 포기되었다. 후기 모더니즘에서는 인문과학의 대상이 되는 종교, 문화, 개인적 도덕만이 비합리주의(irrationalism)의 바람에 날리도록 버려졌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사회

과학에 대한 높은 관점을 후기 모더니즘은 견지하고 있었다. 인문과학에 있어서는 심지어 방법론까지도 합리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현상학, 해석학, 언어분석, 구조주의에 관한 논쟁을 생각해 보라). 그러나 많은 지성인들에게 있어서 이성(이성)은 더 이상 정신(spirit)의 영역에서 객관적 진리를 말해 주는 것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 후기 모더니스트들은 '사실'(facts)의 객관성을 주장하고 '가치'(values)의 상대성을 인정하면서 사실과 가치, 존재(being)와 무존재(nothingness)간의 이원론을 확정하였다. 물론 인간 주체가 아직도 양자의 영역에서 통치하지만 정신(spirit)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이성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합리성의 후퇴는 용감하게 실행되었지만 불안감(angst)이 없이 실행된 것이 아니다. 혹자가 초기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도 생각하는 후기 모더니즘은 대략 1920년대부터 1970년대를 통해 번창했으며 아직도 하버마스(Habermas), 히크(Hick), 그리고 롤스(Rawls) 등과 같은 사람들로 대표되고 있다.

후기 모더니즘의 부분적 상대주의에서 포스트모던의 완전한 상대주의로의 이동은 나의 견해로는 지식과 진리가 인간 주관성의 가변적 역동성으로 완전히 동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윤리적, 문화적, 언어적, 사회경제적 집단의 주관성이지만 어떤 형태의 상대주의에서는 개별적 주관성이기도 하다. 흄(Hume)의 경험주의에서는 이미 모든 지식이 인식 주체의 감각적 인상으로부터 도출되고 있다. 칸트(Kant)의 철학에서도 선험적 주관성은 자연적, 도덕적, 심미적, 종교적 지식의 기본적 범주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던의 상대주의의 간에 나타나는 유일한 차이는 공통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신앙

에 기초를 둔 보편적 진리에 대한 생각이다. 흄과 칸트는 양자를 모두 주장하였다. 그러나 낭만주의, 역사주의, 지식사회학, 그리고 신(新)해석학은 이와 같은 신앙들을 점진적으로 부식해 들어가서 마침내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심지어 자연과학과 일반 상식까지도 주관적 가변성의 미로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다양한 관점에서, 상대적이 아닌 신앙이나 진리,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토마스 쿤(Thomas Kuhn)은 심지어 과학까지도 일련의 모델(model), 메타포(metaphor), 패라다임(paradigm)일 뿐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모든 사실들은 이론부하적(theory-laden)이고 모든 이론들은 패라다임상대적(paradigm-relative)이다. 그리고 모든 패라다임들은 인간 주관성의 역동성에 상대적이다. 따라서 종교적, 도덕적, 과학적인 모든 진리, 심지어는 상식까지도 인간 경험에서 구체화되는 다양한 패라다임, 틀(framework), 언어, 그리고 세계관의 기능이다. 데리다(Derrida)와 해체주의자들이 텍스트의 유일한 의미는 독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원주의로부터 포괄적 주관주의를 경유해 상대주의로 인도해 가는 논리는 아주 냉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포스트모던 상대주의의 핵심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이 포스트모던 상대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텍스트의 의미를 생산해내는 것만이 아니다. 진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상대적인 것만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에서 우리는 실제의 창조주들이다. 실재 자체가 갖고 있는 바로 그 질서와 의미는 경험에 내재하고 있는 개인적, 사회-문화적, 언어적, 그리고 개념적인 틀에

의해 제공된다.”

우리의 경험과 분리되어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실재는 없다. 파라다임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질서, 의미, 그리고 진리를 지각하는 단순한 렌즈(lenses)만이 아니다. 인간의 언어는 실재의 질서, 의미, 진리내용(truth-content)의 원천이다. 보다 더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세계를 창조한다고 말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상대주의에서는 칸트가 말하는 선험적 자아의 구성적 능력 - 관념론에 있어서는 절대자의 창조적 능력 - 이 불확정적인 개별적 인간과 역사적 공동체의 자산이 되었다. 이것은 인간 자율성의 절정(full bloom)이다.

이와 같은 모던, 그리고 포스트모던 사상에 있어서 인식주체의 우주적 창조성은 몇몇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하버드 대학의 철학교수인 굤맨(Nelson Goodman)은 개념적 체계(conceptual scheme)의 사용과 ‘세계-구성’(world-making)을 동일시하고 있고 가다머(Gadamer)의 존재론적 해석학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세계를 투사하는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피터 버거(Peter Berger)의 책은 ‘실재의 사회적 구성’(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토마스 쿤(Thomas Kuhn)은 파라다임은 과학의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구성요소’(constitutive of nature)라고 주장하고 있다. 월터 앤더슨(Walter Anderson)은 포스트모더니티에 관한 자신의 저서의 제목을 조소적으로 “*Reality Isn't What It Used To Be.*”라고 붙였다. 상대주의에는 “그것은 당신에게는 진리이지만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통속적인 표현 이상의 무엇이 있다. 그것은 뉴 에이지 운

동의 교사(guru)인 셸리 매클레인(Shirley MacLaine)이 “여러분은 신이고 나도 신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신조를 고백하는 하나의 종교이다. 이것의 기원은 창세기 3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3. 상대주의, 이데올로기, 권력 정치

(Relativism, Ideology, and Power Politics)

신적 존재들로 구성된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창조해 가고 있다. 자신의 경험들을 창조하고 자신의 가치들을 명료히 하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구성한다. 이것들은 우리의 실재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오늘날과 같은 상대주의적 풍토에서는 다문화교육(multi-cultural)이 그 자체로써 합당하고 중요하지만 문화적 평등주의를 회피하거나 민족 중심적 역사적 허구(ethno-centric historical fiction)로 변질되는 것을 회피하기 어렵다. 토착인의 북 연주(drumming)는 심미적으로 모짜르트(Mozart)의 심포니와 동일하며, ‘투 라이브 크루’(2 Live Cru)의 랩 음악이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소네트와 마찬가지로 훌륭하다고 한다. 또한 유크리드의 기하학을 실제로는 고대 아프리카인들이 발명했으며,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실제로 젊은 시절 지혜있는 이러코이(Iroquois) 원주민 추장에게서 미국 행정부의 원리를 배웠다고 듣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스펙트럼의 다른 한 극단으로부터 우리는 미국의 건국 선조들은 모두 제리 폴웰(Jerry Falwell)과 같은 보수주의적 크리스찬들이었다고 듣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 또는 우리 공동체의 기억에 있어서 무엇이 진리인가에 관한 중립적인

사실이나, 부인할 수 없는 사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을 논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신론(polytheism)에서는 흔히 신들 사이에 전쟁이 있다. 이것 역시 대부분의 포스트모던 지성인들에 의해 이해되고 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모든 해석을 해체하고자 하는 푸코(Foucault)의 해체론은 계속 막스(Marx), 니체(Nietzsche), 그리고 문화적 다원주의자들의 노선을 걷고 있다. 이들은 지적, 문화적 체계가 단순한 호기심과 창의성보다는 더 심오하고 어두운 인간의 충동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문명의 표면 밑바닥에는 유용한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지 생존하고 번창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철학, 문화, 사회 질서, 도덕, 종교는 단지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많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와 같은 분석이 설득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의심의 해석학(hermeneutics of suspicion)과 이데올로기 비판을 자신들의 방법론에 첫 단계로 삼음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해방론자들을 결합시킨다. 후속하는 이론 구성은 자기권한부여(self-empowerment)와 자기해방의 문제이다. 그 논리는 단순하다. 각각의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합당하다고 보는대로 세계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우리의 권리를 강탈하고 우리를 지배하려 하기 때문이다. 사실과 방법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이념적(ideological)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사실을 고려하거나 당신의 방법론적 규칙을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중립적인 사실, 보편적 진리, 표준적 방법에 호소하는 것은 사실상 상류계층의 유로-아메리칸 백인 남성(Euro-American white male)의 편견에 호소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제국주의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래서 포스트모던의 지적 활동은 권력 정치(power politics)로 퇴보하게 되었다. 이것은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가 말하는 바 “정치적으로 온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the politically correct)³⁾ 간의 고상한 대화가 아니라, 권력 투쟁에 있어서 우위를 도모하고자 상호 경쟁하는 이익집단들 간의 “고함치기 시합”(shouting match)이다. 대학이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분열되게 되었다. 말하자면 판테온(pantheon)에 시민전쟁이 있는 셈이다. 이것은 모더니즘의 내재적 역동성에 대한 포스트모던의 자기파괴적인 결과이다.

4. 주의사항(A caveat)

이러한 상황을 평가하기 전에 포스트모던 상대주의가 비록 강력한긴 하지만 아직 대중적이거나 학문적인 문화에서 주된 입장은 아니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문화적, 종교적 다원주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보편적 가치와 객관적 진리를 믿고 있다. 마찬가지로 과학자, 철학자, 사회과학자 등 많은 학자들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저한 모더니스트들이고, 또

3) “the politically correct”를 “정치적으로 온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번역했는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에서 소위 개방적인 정신(open-minded)을 소유하고 있는 지성인들의 태도를 의미한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도성 없이 해를 끼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태도로서, 예컨대 미국 흑인들을 지칭할 때 ‘Afro-American’의 용어를 쓰며 ‘he or she’ 후에 반드시 ‘she or he’ 등의 용어를 용의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 태도를 의미하고 있다. - 역자주

많은 사람들은 특정 종교나 문화체계의 규범성을 믿지는 않지만 객관적인 과학적 진리를 신봉하는 후기 모더니스트들이다. 뿐만 아니라 상대주의는 피하려고 하지만 다원주의는 긍정하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수의 종교인들 역시 자신의 관점으로 계속 학문적 활동에 공헌하고 있다. 본인이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은 포스트모던 상대주의는 지적, 문화적 엘리트들 사이에서, 그리고 문학과 교차문화(cross-cultural), 여권주의자, 많은 대학의 종교학과 등에서 번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완전히 포스트크리스찬의 시대,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III.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

여기서 개혁주의적인 목소리를 내기 전에 먼저 상대주의의 논리적인 점을 드러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배타적으로 기독교적인 진리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비판이 아니다.

상대주의는 다원주의로부터 도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백하게 모순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비판이 일부 상대주의자들이 거부하는 일관성의 가치와 논리학의 타당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첫째, 상대주의는 세계관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단순히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대한 상이한 설명은 상이한 실재를 투영한다기보다는 단지 동일한 세계의 각기 다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물학자와 피그미족 사냥꾼들은 아주 비슷한 나뭇잎에 대해 다양하지만 모순되지 않는 설명을 한다. 공

통적으로 인정되는 진리 기준이 없다는 사실로 상대주의가 결론지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우리는 정보의 부족이나, 인식하거나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진리를 인정하는데 개인적 흥미가 없기 때문에 공통된 실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색맹이 색상의 체계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것은 아니다. 종교, 도덕, 그리고 세계관에 있어서 융해할 수 없는 엄연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단순히 상대주의는 참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이 상대적이라는 분명한 사실로부터 상대주의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주장들이 실제 여러 상황과 개인차에 따라 나에게서는 진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진리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진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상황이나 관점의 상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른바 공통의 질서나 틀을 부인해 버리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특정한 사태에 관한 명제가 아무리 상대적이고 불확정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주 주의깊게 충분히 설명하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진가(truth value)가 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짓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우리의 많은 신념들이 가진 진리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사실이 모든 진리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대주의가 단순히 그것을 지지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증거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인간의 신념의 차이, 일치하는 진리기준의 결여, 그리고 많은 지식의 상대성 등에서 상대주의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아마도 상대주의자들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

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증거와 일치하며, 보편적 기준을 주장하는 단순한 사실이 적어도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그러한 보편적 기준을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주의가 그 자체로서 지지 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제 나는 상대주의가 자기모순적(self-contradictory)이며, 자기당착적(self-stultifying)이며, 또한 자기파기적(self-defeating)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자 한다.

먼저 상대주의는 자기모순적이며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프로타고라스(Protagoras)에 대한 플라톤의 논박 이후로 인정되어 오고 있는 사실이다. 상대주의는 지식, 진리, 실재에 대한 보편타당한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부정한다. 상대주의는 보편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진리는 인식주체에 따라서 상대적이며, 실재는 경험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보편적인 주장을 한다.

나아가, 상대주의는 다른 개념 체계의 진리를 긍정하면서 동시에 부인한다. 왜냐하면 상대주의는 모든 체계의 타당성을 긍정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보편적 체계가 존재한다는 주장들 즉, 기독교, 이슬람교, 플라톤주의, 과학적 인문주의, 마스주의 등과 같은 모든 체계들이 허위라고 은연 중에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대주의의 자기모순적인 성격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급진적 상대주의는 그 실재가 이론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자기당착적이다. 포스트모던 상대주의는 일반적으로 다른 개념체계들과 대화하고 다른 개념체계들을 평가하는 일에 참여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당착적이다.

만약 모든 신념들의 의미와 진리가치(truth-value)가 특정한 인지적 틀에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그 때는 진지하고 유능하게 그 틀에 참여해 보지 않고서, 즉 그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한 마일 정도를 가보지 않고서는” 그 틀의 상대적인 세계관을 참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진리 주장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주의자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 모든 틀에 대해 판단을 내림으로써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의미가 인지적 틀 (framework)을 교차해서 항상적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의미가 전적으로 파라다임 상대적(paradigm-relative)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파라다임 또는 언어로부터 다른 파라다임이나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푸코(Foucault)는 이것을 “파라다임의 근본적 통약불가능성”(radical incommensurability of paradigms)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주의자들은 모든 의미가 파라다임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러한 경우 비상대주의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비상대주의자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것은 자가당착적이다.

셋째, 상대주의는 자기파기적(self-defeating)이다. 상대주의는 그것이 성취하고자 하는 희망, 즉 사람들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에 관용하고 긍정하며 협동해야 한다는 희망을 스스로 파기한다.

우선 상대주의는 보편적인 진리와 공통의 실재, 또는 그들의 견해에 도전하는 견해나 관심을 지지하는 모든 종교적, 철학적, 문화적인 관점들을 은연 중 부인함으로써 자기파기적인 일을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생존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념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극

히 관용적인 태도가 아니며 정치적으로 온당한(politically correct) 일도 아니다.

상대주의는 또한 인간 가치와 행동 기준의 비상대성을 부인함으로써 스스로를 파기한다. 왜냐하면 이처럼 인간 가치와 행동 기준의 비상대성을 부인할 경우 이해나 관용, 그리고 존중은 결코 보편적인 규범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주의자들은 보편적인 인간권리를 부인하고, 잔인성을 덕목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삼는 파라다임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만약 모든 도덕적 진리가 문화체계에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치주의자들이 세계를 정복해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모더니스트들과 함께 상대주의자들을 죽음의 캠퍼에 넘겨주게 될 경우에도 이들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것이다. 인종차별주의와 남녀차별주의는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상대주의는 그 자체의 가장 심오한 희망의 기초를 스스로 파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대주의는 자기모순적이며 자기당착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파괴적이다. 상대주의는 절대적 인간 자율성의 자기파괴적 결과이다.

IV.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개혁주의적 대안

(A Reformed Alternative to Modernism and Post-modernism)

이제 개혁주의 전통, 특별히 화관 신칼빈주의 전통(Dutch Neo-Calvinist branch)이 현대 합리주의(modern rationalism)와 포스트모던 상대주의(post-modern relativism)에 대해 각각의 타당한 통찰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대안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

기로 하자.

먼저 포스트모더니즘의 정당한 관심사를 생각해 보자. 현대 합리주의를 비판함에 있어서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이성에 의해서 정당화할 수 없는 기본적인 전제들에 대해 현대의 다양한 패러다임들이 갖는 상대성과 이성의 상대성을 올바르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보편적인 객관적 진리에 대한 모더니즘의 제국주의적인 주장이 엄청난 허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주의자들과 동의하고 있다.

또한 어떤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삶의 다른 차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마르크스와 니체, 프로이트 이후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삶의 다른 차원들이 세계관과 인생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예를 들면, 바빙크(Bavinck)와 히싱크(Geesink)는 그들의 저술에서 퍼스넬리티(personality), 발달단계, 성, 사회화 등의 요인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도예벨트(Herman Dooyeweerd)의 인간학에서 우리는 세계관과 지적 체계의 형성에 있어서 인간 존재의 심리적,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차원 뿐만 아니라 도덕적, 종교적 차원이 어떻게 이성적 차원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혁주의의 신념과 가치 형성에 작용하는 다양한 비이성적 요인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동의한다.

그러나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이성의 표면 가장 깊은 곳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정신(mind) 뿐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를 방향짓는 이른바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인간의 본질을 지적해 냄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능가하고 있다. 월터스토포(Wolterstorff)는 칸트의 사상을 바꿔놓고 있다. 즉 궁극적으로 이성은 종교의 한계 내에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비단 권력과 생존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비인격적인 생명력(life-force), 물질적 우주의 침묵적인 냉담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인간의 생명과 운명의 본질 및 의미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확실히 이데올로기는 삶을 반영한다. 그러나 삶은 궁극적인 것에 대한 신앙에 의해서 인도된다. 결국 푸코(Foucault)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심오한 주관성은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제 문제에 관해서는 상이한 신앙이 존재한다. 그래서 학문의 세계와 대중적인 제 영역에서 이데올로기와 세계관의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개혁주의 사상은 신념의 다양성과 모순성을 악화시키는 제3의 역동적 요인, 즉 인간의 지식과 여타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죄의 영향을 확인함에 있어서 상대주의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칼빈주의자들은 죄가 인간의 정신을 어둡게 했으며 그 적절한 기능을 훼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세계에 관해 잘못된 신념을 형성하고, 그것을 사육을 유지하는 이데올로기로 바꾼다 해도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 타락한 인간은 진리를 부정의로 억누르는 일을 하는데, 흔히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이웃을 억압하기 위해서이다. 개혁주의적 관점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주의를 포용하게끔 동기지우는 위험들, 즉 인간 사상의 오류성과 왜곡성에 관심의 방향을 맞춘다. 칼빈주의 역시 의심의 해석학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자신의 결함과 부정의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결함과 부정의에 더 많이 민감해 왔는지도 모른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포스트모던의 비판에서 배울 점이 있다.

요컨대 개혁주의적 관점은 인간 주관성의 다양성, 상대성, 오류 가능

성에 대한 포스트모던의 강조가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상대주의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한층 더 일관되고 통찰력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논의에 있어서 다른 측면, 즉 진리와 정의의 보편적 기준의 존재와 유용성에 관한 모더니스트들의 관심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보편적 기준에 대한 설명없이 개혁주의 사상도 포스트모더니즘과 마찬가지로 상대주의에 대해 무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은 좀 절박한 문제인데, 그 이유는 개혁주의 계통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들이 뜻하지 않게 상대주의를 도와주는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통적 교리주의에 대해 과잉반응을 하는 것이다. 아마 어린 시절 메마른 교리의 강요된 주입과 지나치게 이성적인 종교에 대한 반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또는 계시의 진리는 '관계적'(relational)이지 명제적(propositional)이 아닌 것처럼, 또는 정통교리와 그 실천(orthopraxis)에 대한 모든 성찰을 스콜라주의나 율법주의(legalism)로 기각해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현재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것은 단지 비이성적 종교적 주관주의와 반율법주의(antinomianism)를 조장할 뿐이다.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두 번째 방법으로 상대주의를 선통하기도 한다. 이성의 자율성에 대한 모더니스트들의 주장에 반응해 어떤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참된 신앙과 독특하게 기독교적인 전제들에 대해서도 이성의 상대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어떠한 진리이든지 간에 그 보편적 유용성이 실제로 부인되어 오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에서 나타난 결과는 종교에 기초한 상대주의(religiously-based relativism)이다. 진리는 완전히 체계상대적(system-relative)이라는 사실이 당연하

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오직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올바른 체계를 소유하고 있음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불신자들은 종교나 도덕, 자연, 역사, 심지어는 일상 생활의 여러 사실들에 대해서도 진정하게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비그리스도인들이 상대주의나 불가지론을 채택하는 좋은 이유가 된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표준적인 개혁주의 신학은 결코 이와 같은 함정에 스스로를 빠뜨리지 않는다. 모더니즘과 마찬가지로 개혁주의는 지식과 진리, 도덕 질서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유용한 기준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적 계시와 더불어 개혁주의 신학은 일반계시와 일반은총(common grace) 즉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형상이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창조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실재를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롬 1장), 도덕률의 윤곽을 직관하며(롬 2장), 또 창조세계의 구조에 대한 어떤 통찰(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일반계시와 일반은총을 인정함에 있어서 칼빈주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우주 질서가 존재함과 인지 가능한 것을 의미와 진리조건의 보편적인 틀로써 제시한다. 이것은 세계관과 인지체계가 그 안에서 모양을 갖추며 복음의 보편적 주장이 의미를 갖는 공통의 맥락(context)이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 본질의 공통성과 규범적 질서를 유지한다. 이 틀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합당한 위계질서와 정당한 권위,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의와 억압 간의 차

이를 말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준다. 이 틀은 다원적인 학문의 토론장에서 실재의 본질에 관한 진정한 논의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것이 보편적 기준에 대한 모더니스트들의 정당한 관심에 대한 개혁주의의 반응이다.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에 대한 개방성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개혁주의적인 지적 전통은 현대 합리주의와 포스트모던 상대주의간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개혁주의적인 인식론은 개혁주의 신학의 인도를 받으면서 소위 '신앙적 관점의 합리적 실재론', 즉 신앙에 기초한 관점에서 실재에 대한 합리적 설명(a rational account of reality from a faith-based perspective)이라고 일컫는 것을 정교화시켜 준다. 또 개혁주의적인 인식론은 실재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정의의 기준을 제공해 주는, 질서있고 인지 가능한 실재(reality)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인식론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질서를 이해하는 것은 순수한 이성의 행사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어떤 헌신에 기초하고(commitment-based), 문화적으로 조건지워진(culturally-conditioned) 관점들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이 개혁주의적인 인식론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기능을 잘 발휘하는 인식 도구(perceptual equipment)이다. 다시 말해 바른 안경을 통해 실재를 바라보는 도구를 소유하는 것이, 그 한 부분은 물론 특별히 전체를 바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론적 관점에서 개혁주의적인 학문은 다원주의적인 학문의 공적 광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단 개혁주의적인 학자들 뿐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신앙적 관점의

합리적 실재론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실재를 신앙으로 경험하면서 해석한다. 이러한 공통의 바탕 위에서 개혁주의 학자들은 합리주의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판단이 가진 상대성, 즉 문화적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영적인 역동성에 대해 갖는 상대성을 계속해서 보여 줄 수 있다. 이러한 좋은 이유들을 제공하면서 개혁주의 학문은 또한 상대주의자들에게 우리 경험에는 공통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giveness)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 왜 해석이 단지 비이성적인 이데올로기만은 아닌지를 말해 줄 수 있고, 왜 어떤 종류의 규범적인 질서가 없이는 공통의 선이 왜 불가능한지를 보여줄 수 있다. 개혁주의 학문은 논의되고 있는 실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체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정교화할 수 있으며, 그 설명에 있어서 경험적이며 관점적(perspectival)인 요인을 모두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그 것이 제공하는 지적이고, 실제적이며 심오한 영적 이익들을 말해 줄 수 있다. 이것이 공적인 학문적 대화에 있어서 개혁주의적인 참여를 위한 기초이며 전략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 상이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지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함께 씨름할 수 있고 서로간에 유익을 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러한 가능성을 유지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홀로 깨우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적인 학문적 대화에 있어서 개혁주의적인 참여는 더욱 계몽될 것이며 심지어는 우리의 불신 동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관심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성공은 은혜의 선물이다.

V. 포스트모던 다원주의와 개혁주의 학문의 공동체

(Post-Modern Pluralism and a Community of Reformed Scholarship)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원주의 사회 안에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공동체들'의 중요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한다.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의 '마음의 습관'(Habits of the Heart)이라는 책을 생각해 보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전문적 학문에 대한 개혁주의의 공헌은 개혁주의 학자들의 공동체가 존재할 때에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어떤 개인도 개혁주의적인 지적 비전 전체를 정교화하고 유지해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특수한 연구 영역에 정통해 갈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성경적 실재관을 정교화하고 이러한 모습의 철학적 함의를 밝히며, 이것을 현대 학문의 이론적, 실제적인 제 문제에 관계 지우는 과업은 분명 공동적인 과업이다.

이 공동체는 개별 학자들의 비형식적인 망(network)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과업은 개별 학자들이 전문적 학회와 같은 어떤 공동의 조직적 구조(organizational framework)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기독교 학교나 개혁주의 대학교와 같은 제도에 의해서 더욱더 크게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우리가 제도를 세우지만 개혁주의 학자들이 기능적 공동체(functioning community)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과업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일관된 공동의 관점이 더욱더 발전되고 활력을 유지하며 다음 세대에 계속적으로 전수되려면 상이한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 지속적인 대화와 협동, 상호 수정작용,

그리고 상호비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업은 또한 개혁주의적이어야 한다. 우리 기독교 진영 안에 도 계속 증대해 가고 있는 다원주의적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기독교적(Christian)인 것과는 구별되는 ‘개혁주의’(Reformed)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교화하고, 또 이것이 고등교육의 과업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일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육기관들 뿐 아니라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개혁주의 대학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우리는 우리 전통의 독특한 특징과 장점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초교파적인 기독교적 대화에 참여해야 하며, 또 그러한 대화로부터 유익을 얻어야 한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대학교의 교수진들은 성경에 대한 개혁주의적 접근과 개혁주의 교리를 소유해야 하며 동시에 그 학문 분야의 권위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고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써 충분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의 신앙 고백은 학문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 성경이 규범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전통은 인간 학습과 삶의 많은 영역에 대한 성경적 함의를 정교하고 계몽적이며 때때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들은 성경 과목, 신학, 윤리학, 철학, 사회·경제·정치 사상, 그리고 심지어는 과학 분야의 제 문제 등 그 어느 분야에서도 쉽게 예를 들 수 있다. 우리 학자들은 이러한 전통에 익숙해져야 하며, 이 전통을 계속 전승하고 개혁하며 이것을 그들 각 학문 분야의 현대적 문제에 적용해 가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모던 학문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개혁주의 학문의 본질적 원리에 대한 합의를 성취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무지, 의심, 또는 반감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의 역사적 정체성과 기초에 대해 도전하고 재규정한다면 우리는 결코 공적인 광장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기본적인 것에 대한 공동의 헌신이 없이는 참다운 학문의 자유가 있을 수 없고 우리들 가운데 정당하고 건전한 다원주의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학문 기관은 보다 광범위한 개혁주의 기독교 공동체의 연장인 동시에 이 공동체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학자들이 이 공동체와 기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접근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 그 공동체가 스스로를 위탁하고 있는 교리와 삶의 표준에 대한 접근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역사적으로 개혁주의적인 교육 활동은 이와 같은 공동체와 동떨어져서는 결코 생겨날 수 없었고, 확실히 이 개혁주의적인 교육 활동은 그 존재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살아 있는 신앙 공동체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포스트모던 다원주의의 상황에서 결코 존재할 수도 번창할 수도 없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학자들이 그 공동체의 존경받는 구성원들이 될 때 비로소 이들 학자들은 다시금 그 공동체의 계속적인 교육과 개혁에 공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개혁주의적인 학자들의 참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공동의 이해를 중심으로 언약(covenant)을 유지해가지 않는 한 현대 다원주의의 끊임없는 진동이 개혁주의적인 학문 활동을 내부로부터 약화시키고 침식시켜 결국에 가

서는 말끔히 씻어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에게 황금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동일한 포스트모던의 역동성이 또한 치명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개혁주의 대학교를 설립하도록 인도하시든지 아니하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란다.